

일주문



현성 스님 독거어르신 돌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의장 현성 스님은 8월 14일 말복을 맞아 흥은동 일대 독거어르신 185명에게 삼계탕을 보시했다.



인드라망 불교기능학교 신입생 모집
인드라망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10월 20일까지 서울 신정동 인드라망교육도장에서 매주 화·목요일 저녁 7시 불교기능학교 교육을 진행한다.



범어사 해병대 가족법회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매일 둘째·넷째주 수요일 오후 7시 해병대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법회를 개최한다.



조계사 치매예방강진 프로그램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8월 29일 종로구치매예방센터와 조계사에서 치매예방강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영천 은해사 개산대제
영천 은해사 주지 둔관 스님은 10월 2일 은해사 일대에서 제1202돌 은해사 개산대제를 봉행한다.



불교문화사업단 나눔의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지현 스님은 9월 4일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에서 '양천구민과 함께하는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인천·정도법당 개원
정도회 법륜 스님은 8월 20일 인천 정도 법당을 개원하고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수행법회를 봉행한다.



구담사 태아영양 천도재
구담사 주지 지을 스님은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을 모시고 '태아영양 천도재 및 점안식'을 봉행한다.



법현 스님 차례 제대로 지내기 운동 전개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9월 7일 오후 7시 마포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차례특강과 다보법회'를 봉행한다.



청암사 승가대, 사찰 최초 스마트 시스템 구축
경북 김천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은 사찰 최초로 승가대학교 울원에 스마트 캠퍼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 4일 오전 11시 시연회를 개최한다.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부터 하겠다

동아시아불교의례연구소장 인묵 스님, 의례 한글화 나서

불교의례와 의식의 체계화와 대중화를 위해 설립한 동아시아불교의례연구소가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한다.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 소장 인묵 스님은 8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의례 연구 및 의례 실행의 체계화를 위해 9월 3일 창립세미나를 시작으로 연구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계종 의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묵 스님(봉선사 주지)이 소장을 맡고, 경국사 주지 정산 스님을 비롯한 의례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전문가, 학자 10여 명이 참여했다.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는 조계종 의례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주요 연구진으로 포진한 것이 특징이다. <조계종 표준

법요집> 편찬에 참가한 연구진들로 중단 의례 체계화에 대한 유기적인 연구활동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연구소는 일상예로부터 최근 불교계 현안으로 떠오른 연등제, 수륙제, 영산제 등 불교의례 전반을 연구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인묵 스님은 "의례 대중화를 위해 먼저 의례의 한글화 작업에 나서서 한편 동아시아 불교의례의 비교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의례 한글화를 불교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경전을 낭독하면서도 그 뜻을 모르고 하는 신도들이 많다. 의례에 참여하는 이들이 환희심을 내기 위해서는 그 뜻을 알 수 있는 한글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스님은 "1700년간 다듬은 한문으로 이뤄진 의례를 한글로 바꾸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교 대중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용성 스님의 한글화 노력 이후 꾸준한 시도에 최근 중단에서도 관심을 갖는 만큼 5급 승가고시부터 의례 실습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고 말했다.

영산작법을 전수하고 있는 스님은 의례 전승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스님은 의례전승에 있어 재가자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의례와 의식 계승을 위해 교수사스님을 육성하는 일에 비중을 두겠다"며 "향후 불교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먼저 상좌로부터 재가자를 대상으로 한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시아불교의례연구소 창립세미나는 9월 3일 오후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가 '규봉종밀의 <원각경수중의> 연구', 이성운 정우서적 대표가 '예불의 의미와 행법', 이도흠 한양대 교수가 '불교 의례의 문화론적 연구' 등을 주제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명상하면 머리 빠짐 막는다

명상상담 워크숍 여는 명상상담원, 인경 스님

"아유 열받아." "열이 뻘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의 체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표현한 말이다. 이 열은 비단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여유가 없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바쁘지 않음에도 매 순간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몸으로는 명상 수행, 마음으로는 상담 기법으로 생활의 여유를 느끼게 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명상치료학회 명상상담원 구원 원장 인경 스님은 9월 3일부터 매달 첫째주 토요일마다 서울 불광산사에서 '명상상담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경 스님은 "머리가 빠지고, 어깨 못치고, 등이 아픈 모든 것은 바빠 살아야 한다는 중앙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명상을 통해 직장인들, 사회인들이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적정의 경계로 가는 명상이 '상구보리' 라면 그 경계로 가는 이들, 또 그 경계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상담하는 것은 '하화중생'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명상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을 서로 나누고 사 람들을 이끄는 상담"이라며 "강연과 함께 명상을 하고 그 체험을 상담으로 나누는 자리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호흡 명상과 심리 치료"를 주제로 첫 워크숍을 여는 명상상담 연구원은 매달 다양한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는 참여대중들이 각자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답을 직접 연계하기 위함이다. 첫 워크숍에서는 인경 스님이 주제 발표에 나서며 정신과 의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02)2236-5306

노덕현 기자

좋은 차기 회장 나오길 매일 발원해

50여 수도권 사찰연합 직할교구 이현수 회장

"초대 회장으로서 차기 회장이 직할교구신도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초석을 잘 마련해 놓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직할교구신도회(회장 이현수)가 창립 1주년을 맞았다. 1주년을 맞아 만난 이현수 회장은 첫 마디부터 "항상 신도회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차기 회장님이 나타나 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운을 뗐다.

올해 73세인 이현수 회장은 "나이가 있고, 몸도 너무 약해져서 처음부터 회장직을 맡지 않으려고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아프지 않고 사람들이 아직 나를 찾아올 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진정한 포교의 길이라 생각해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일대를 관할하는 직할교구 소속 사찰 신도회인 직할교구신도회는 현재 50여 곳의 사찰들을 중심으로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과 직할교구 순회법회 등을 진행해 왔다.

이현수 회장은 8월 27~28일 열



린 직할교구신도회 창립 1주년 기념행사 역시 다문화가정 돌기 기념마련 일환으로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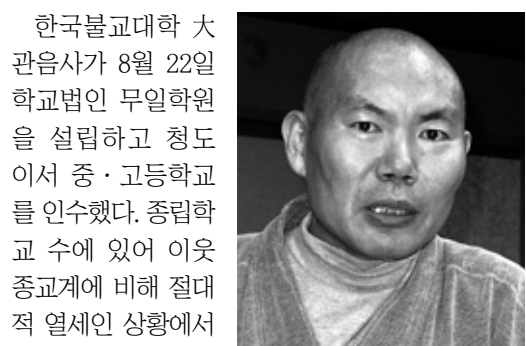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린 창립기념 법회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돌기 바자회, 박재동 화백 기금 나눔전 등을 통해 모인 기금은 아름다운행의 마하이주민센터에 지정 기탁했다.

이 회장은 "단순히 절에 다니고 경전만 공부한다고 해서 불자가 아니다"라며 "속세에서도 불자들이 지켜야할 계율이 있다. 언제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하며, 어느 사람 경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불교종립학교=명문학교'로

학교법인 무일학원 설립한 우학 스님



한국불교대학 대 관음사가 8월 22일 학교법인 무일학원을 설립하고 청도 이서 중·고등학교를 인수했다. 종립학교 수에 있어 이웃 종교계에 비해 절대적 열세인 상황에서 대 관음사의 이서 중·고등학교 인수는 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관음사 주지 우학 스님은 "이서 중·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불교학교법인은 명문이란 이미지를 일반인들에게 심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학 스님은 "현재 불교계는 불자 인제 부족과 네트워크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감로수와 같은 물줄기가 되는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법인 무일학원은 청도 이서 중·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학교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무일학원은 향후 초등학교 인수를 비롯해 대관음사가 운영 하는 참좋은 유치원과 연계해 정규교육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도 이서중학교는 1949년, 이서고등학교는 1966년에 설립된 명문 사립고등학교로 청도 지역 내 대입률이 수위를 달리고 있다. 중학교 총 5학년, 고등학교 18학급이다.

한편, 무일학원은 19일 이사회를 열어 이서 중고등학교 명칭을 참좋은 이서 중·고등학교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낙후 시설 보수 및 기숙사 정비, 장학제도 확충을 진행하며 법인 이념에 맞게 학교법당도 건립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선산 원각사 창건80주년

기념행사 열어 봉사기금 마련

선산 원각사(주지 대혜)는 8월 14일 창건 8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간병봉사와 교정법회 후원을 위한 봉사기금 마련을 위한 먹거리장터와 배중음악회에는 1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대혜 스님은 "백중장은 옛부터 힘든 농번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다리며 휴식을 즐긴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천년고찰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관세음보살 42대원 성취 다라니독송 3년 大정진기도

1,200년 역사의 천년고찰 봉은사는 도심 속 수행 중심도량으로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끈 대표적인 선승수사찰입니다. 최근 사찰 주변의 고층빌딩 신·중축 추진과는 정반대로 시설 개보수조차 할 수 없는 수행환경의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Table with 3 columns: 구분, 주간기도, 철야기도. Rows include 입재, 일시, 동참금, 접수.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奉恩寺 |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135-090 | T 02 3218 4800 F 02 544 2141 www.bongeunsa.org

